

독도, 이것만은 꼭 알자! 핵심 용어 해설집

머리말: 독도를 향한 첫걸음

독도를 제대로 알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 해설집은 독도를 둘러싼 조금은 어려운 역사, 지리 용어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1. 독도의 여러 이름: 누가 어떻게 불렀을까?

독도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서양에서도 각기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었죠. 아래 표를 통해 독도의 주요 이름과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구분	이름	의미와 유래
한국	우산도(于山島)	삼국시대에 존재했던 '우산국'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역사 기록에 가장 오래전부터 등장하는 독도의 명칭 중 하나입니다.
한국	석도(石島)	'돌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뜻의 '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이름입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에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양	리앙쿠르(Liancourt)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이 이름은 당시 서양 해도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일본	다케시마(竹島)	본래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독도를 '마쓰시마(松島, 송도)'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1905년 독도를 자기 영토에 편입시키면서 독도의 공식 명칭을 '다케시마'로 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독도가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 알려진 중요한 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2. 독도는 어떤 곳일까?: 땅, 바다, 그리고 법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닙니다.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핵심 용어를 통해 그 가치를 알아볼까요?

1. 영토, 영해, 영공 국가의 주권(주인으로서의 권리)이 미치는 범위를 땅, 바다, 하늘로 나눈 것입니다.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땅, 영해는 영토의 해안선에서 약 22km(12해리)까지의 바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 바로 위의 하늘을 말합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독도 주변의 영해와 그 위의 영공 역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2.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해안선에서부터 최대 약 370km(200해리)까지, 그 나라만 물고기를 잡거나 해저 자원을 개발하는 등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바다 구역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이기에, 독도를 기준으로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차세대 에너지 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약 6억 톤(우리나라 국민이 약 30년간 사용 가능한 양)이나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도는 이처럼 막대한 해양 자원을 지키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3.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어떤 영토에 대해 국가가 실제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독도경비대를 상시 주둔시키고, 우리나라 주민이 거주하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이사부길, 안용복길'이라는 공식 주소를 부여하는 등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로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 활동을 통해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도의 지리적, 법적 의미를 이해했으니, 이제 역사 기록 속에서 독도가 어떻게 우리 땅으로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역사 속 증거들: 누가 먼저 알았을까?

오래된 역사 기록들은 독도가 누구의 땅이었는지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록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확인해 봅시다.

3.1. 우리 역사 속 기록

-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 그래서 중요한 점은? 울릉도(무릉)에서 독도(우산)가 눈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공식 문서 중 하나로, 당시 우리 조상들이 두 섬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 그래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 '석도(石島)'는 '돌섬', 즉 독도를 의미하며, 대한제국이 근대적인 법령을 통해 독도가 울릉군의 관할 아래 있는 명백한 우리 영토임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했음을 증명합니다.

3.2. 일본 역사 속 기록

아이러니하게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해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일부는 17세기와 19세기 일본 정부의 공식 기록에서 나옵니다.

- 은주시청합기 (**1667년**)

-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일본 관리가 직접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일본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식하고 자국의 서쪽 경계는 오키섬까지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태정관 지령 (1877년)
 - 그래서 중요한 점은? '태정관'은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입니다. 이 문서에서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결론 내렸으며, 이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역사 기록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일관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커지면서,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뒤집혔습니다.

4. 오늘날의 독도 이야기: 끝나지 않은 역사

역사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20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용어들을 살펴봅시다.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주권과 영토를 결정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국제 조약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초기 조약 초안에는 일본이 한국에 반환할 영토로 독도('리앙쿠르암')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일본이 강력한 로비를 벌여 최종 조약문에서 독도를 의도적으로 빼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바로 이 점을 빌미 삼아 "조약에 한국 땅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으니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2.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905년) & 다케시마의 날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을 치르던 혼란한 시기에 '주인 없는 땅'이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독도를 '다케시마'라 이름 불리고 일본 시마네현에 불법적으로 편입시킨 행정 조치가 바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은 이 불법적인 조치를 기념한다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UN)의 주요 사법 기관입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이곳에 가져가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애초에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숨은 의도가 담긴 전략이기도 합니다.

맺음말: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여는 지혜

지금까지 살펴본 핵심 용어들은 단순히 외워야 할 지식이 아닙니다. 이 용어들은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이해하고, 오늘날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독도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의 평화를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